



보도자료



한국대학교육협의회
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

홍보담당관실 ☎ 02-2100-6588

[자료문의] 교육부 대입제도과 과장 심민철, ☎ (02)2100-6368

사무관 최윤정, ☎ (02)2100-6367

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지원실장 최창완, ☎ (02)6919-3830

입학기획팀장 구안규, ☎ (02)6919-3831

15~16학년도 대입제도(교육부) 및 '15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(대교협) 확정

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(시안) 의견수렴 결과 반영

- ▶ 설문조사 결과, 대다수가 시안 전반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
- ▶ 수시 최저학력기준은 등급으로만 설정, 과도한 등급은 완화 유도
- ▶ 논술고사는 가급적 시행하지 않도록 유도
- ▶ 교과중심의 문제풀이식 구술형 면접과 적성고사는 자율적으로 지양
- ▶ 특기자 전형은 모집규모 축소 유도
- ▶ 수시 모집요강은 당초5월말보다 앞당겨 입학 전년도 4월말까지 발표

□ 교육부(장관 서남수)는 9월 23일(월), 「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(시안)」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시안의 내용 중 '15학년도 및 '16학년도 대입제도를 확정하였다.

○ 아울러, 한국대학교육협의회(이하 대교협, 회장 서거석)는 교육부와의 협의를 거쳐 '15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하였다.

- 교육부는 지난 8월 27일(화) 학생·학부모 부담 완화와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「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(시안)」을 발표(대입제도 발전방안 연구위원회와 공동 발표)한 이후,
 - 권역별 공청회 5회 및 전문가·관계자 간담회·토론회 등 14회, 온라인을 통한 국민 의견수렴 및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였으며,
 - 설문조사 결과*, 학부모의 88.8%, 고교 교사의 91.8%, 대학 관계자의 67.6% 등 국민의 다수가 시안 전반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,
 - * 설문조사 결과 붙임2 참조
 -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된 내용*에 대해서는 고교 현장의 안정성과 정상화 기여, 학생·학부모 부담 경감 측면에서 시안의 내용을 일부 보완하였다고 밝혔다.
 - * 의견 수렴 결과 붙임3 참조
- 한편, 대교협은 '2015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 수립 T/F' 구성·운영을 통하여 대입전형 기본사항 시안을 마련하였고,
 - 교육부와의 협의 및 대학총장, 시·도교육감, 고교 교장,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된 "대학입학전형위원회"의 최종 심의를 거쳐 '2015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'을 확정하였다.

<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(시안) 주요 변경내용 >

- 지난 8월 27일 발표된 「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(시안)」에서 변경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 - (수시 최저학력기준) 수시모집에서 수능성적 반영이 완화될 수 있도록 최저학력기준은 백분위 사용을 지양하고 등급만을 사용하되,
 -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과도하게 설정된 등급은 완화하도록 유도한다.

- (특기자 전형) 특기자 전형은 모집단위별 특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모집 규모가 축소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유도한다.
- (입학사정관)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형체계에서 학생부 위주 전형유형을 “교과”와 “종합”으로 구분하고, 학생부 종합 전형에는 입학사정관 등이 참여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.
 - 또한 공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예산을 입학사정관 인건비로 쓸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.
- (전형방법 수 제한) 모집단위별 특성을 고려하여 예체능계열은 전형방법 수 기준(6개)에서 제외하고, 사범계열의 인적성 검사 및 종교계열의 교리문답 등은 전형방법 수 산정시 고려되는 전형요소에서 제외한다.

<전형요소 제외 예시>

- 국어국문학과 : 학생부 50% + 수능 50% (학생부 300점 + 수능 300점)
 - 국어교육과 : 학생부 40% + 수능 40% + 인적성검사 20%(학생부 300점 + 수능 300점 + 인적성 150점)
- ⇒ 이 경우, 인적성검사를 제외한 “학생부 : 수능”의 비율은 1:1이므로 두 모집학과의 전형 방법은 동일한 것으로 간주

- (모집요강 발표 시기) 학생·학부모가 충분히 알고 대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모집요강 발표 시기를 5월말에서 4월말로 당긴다.
 - ※ 최종합격자 일괄발표시스템 구축과 연계하여 '17학년도에는 모집요강 발표 시기를 3월말로 당기는 방안 검토
- (정시 모집단위 내 분할모집) 동일 모집단위 내 분할모집을 폐지 하되, '15~'16학년도 대입전형의 경우 모집단위 입학정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 2개 군까지 분할 모집을 인정한다.
- (논술고사) 논술을 가급적 시행하지 않도록 하고,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유도한다.
- (적성고사 및 구술형 면접고사) 교과중심의 문제풀이식 구술형 면접과

적성고사는 자율적으로 지양하고 가급적 학생부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유도한다.

- (2015학년도 수능) 수능 시행일은 11월 둘째주인 '14. 11. 13(목)로 하며, 수준별 수능이 폐지되는 영어 영역의 출제범위는 기존 A형의 출제과목인 '영어 I'과 B형의 출제과목인 '영어 II'로 한다.
- (고른기회 입학전형) 단순히 성적 중심으로 선발하기보다는 입학사정관 등이 참여하여 학생의 교육 여건·잠재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하도록 유도한다.

< 대교협의 '15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 주요 내용>

- 한편, 대교협이 대학입학전형위원회(위원장 정갑영(연세대학교 총장))의 최종 심의를 거쳐 발표한 「'15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1 수시는 4개, 정시는 2개 이내로 전형 방법 수를 축소

- ◆ 핵심 전형 요소 중심으로 표준화한 대입 전형 체계 내에서 전형이 이루어져 수험생들이 알기 쉽게 대입 전형을 준비할 수 있도록 대입 전형 간소화를 추진함

| 구분 | 전형 유형 | 주요 전형 요소 |
|----|--------|---|
| 수시 | 학생부 위주 | ·학생부 교과 : 교과 중심 ·학생부 종합 : 비교과, 교과, 면접 등 (자기소개서, 추천서 활용 가능) |
| | 논술 위주 | ·논술 등 |
| | 실기 위주 | ·실기 등 (특기 등 증빙 자료 활용 가능) |
| 정시 | 수능 위주 | ·수능 등 |
| | 실기 위주 | ·실기 등 (특기 등 증빙 자료 활용 가능) |

- ◆ 대학별로 전형 방법을 최대 6개 이내로 사용함(정원 내 전형 기준)
 - 수시는 4개, 정시는 2개 이내로 전형 방법 수를 축소
 -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이 동일한 경우 하나의 '전형방법'으로 계산함
 - 단, 예체능계열의 경우 최대 전형 방법 수 기준(6개) 계산시 예외를 인정하며, 사범계열의 인적성검사, 종교계열의 교리문답 등은 전형방법 수 산정시 고려되는 전형요소에서 제외함

2 최저학력기준 완화 및 우선선발 금지

- ◆ 수시모집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은 백분위 사용을 지양하고 등급으로 설정하며, 과도하게 설정된 등급을 완화할 것을 권고함
 -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고 학교생활 중심의 학생선발 권고
- ◆ 동일한 전형으로 선발하면서도 다른 전형 요소를 적용하여 혼선을 유발하는 우선 선발 방식을 금지함
 -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활용한 우선 선발 방식 등 금지

3

대학별고사 활용

◆ 논술

- 논술은 가급적 시행하지 않도록 하고, 논술보다는 학생부·수능 등 대다수의 학생이 준비하는 전형요소 중심으로 반영하도록 권장함
- 논술을 시행하는 경우 고교 교육과정 수준에서 출제하여 학생 스스로 논술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함
- 출제된 문제는 논술고사 시행 이후 바로 공지하고, 문항 해설과 채점 기준은 빠른 시일 내에 안내하도록 함
- 지나친 논술 유형의 다양화 지양 및 논술 문제의 교육과정 수준 출제를 위해 논술 난이도에 대한 고교 교사의 의견 반영 및 고교 교사의 논술 자문위원 위촉을 권장함

◆ 면접

- 교과 중심의 문제풀이식 구술형 면접은 지양하고 학생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권장

◆ 적성

- 교과 중심의 문제풀이식 적성고사는 지양하고 학생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권장함

4

대입전형 시행계획의 발표 후 변경 제한

◆ 대입전형 시행계획의 발표 후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변경을 허용함

- (예외적인 경우) 법령 제·개정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,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, 시정·변경 명령 등 행정처분으로 인해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등
- 단, 학과 개편 및 정원조정으로 인한 변경은 입학년도 전년도 4월말까지 완료

5 고른 기회 입학전형 확대

- ◆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차원에서 농어촌 출신 학생, 저소득층 학생, 고졸 취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고른기회 입학전형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도록 함

* “지역인재 선발”의 경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입법 진행 상황에 맞추어 추진함

6 진학 준비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시

- ◆ 대학은 전형 유형별 지원 현황 및 등록 현황, 모집 단위(계열)별 지원 현황 및 등록 현황, 논술고사 평가 지표 등 학생의 진학준비에 유용한 정보를 자체적으로 공개하여야 함
- ◆ ‘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’에 제시된 정보 항목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수험 준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전형 정보를 대학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추가 공개하는 것을 권장

7 수시모집 원서접수 기간 통합

- ◆ 학생 및 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원서 접수 시기를 ‘수시 1차, 2차’ 등과 같이 분리하지 않고 통합함

원서접수

수시 접수 : 2014.9.6(토)~9.18(목) 중 4일 이상

※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: 2014.7.1(화)~7.11(금)

8**정시모집 동일 학과 내 분할 모집을 금지**

- ◆ 정시모집 지원시 '군' 구분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전의 동일학과 내 분할 모집(가나·가다·나다·가나다)을 폐지하되,
 - 모집단위 입학정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 2개 군까지는 분할 모집 가능
- ※ 금지하는 사례) 정시모집 경영학과 모집인원 100명 : 가군 50명, 나군 30명, 다군 20명 선발

9**2015학년도 대입전형 마감일정 조정**

- ◆ 대입전형 마감일정을 앞당겨서 시행함
 - 대학 입시가 2월말까지 진행될 경우, 2월말에 총원합격 통보를 받는 학생은 오리엔테이션이나 합격대학의 학사일정 등에 대한 정보없이 입학하는 등 어려움이 있으므로 대입전형 마감 일정을 앞당겨서 시행함

| 구 분 | 2015학년도 | 2014학년도 |
|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마감일 | 2015. 2. 25(수) | 2014. 2. 27(목) |

10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자격 조정

◆ 3월 학기와 9월 학기 입학생과 형평성 유지

- 외국에서 전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의 경우, 동일 학년도를 기준으로 3월 입학 학기에 대학에 합격한 자는 9월 학기 입학 모집에는 지원할 수 없음

- 동일 학년도의 '3월 학기 입학'에 합격하더라도 '9월 학기 입학'에 다시 지원할 수 있어 동일 학년도 학적 생성 후 학교 이동 발생으로 인한 입학기회에 대한 특혜 논란이 있으므로 지원자격을 조정함

11 합격자 안내 방법 구체화

◆ 선의의 피해자 발생 방지와 수험생 편의 도모를 위한 합격자 안내 방법을 구체화함

- 합격자 발표(일정, 고지방법 등)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모집요강상에 반드시 안내할 것
 - 인터넷 발표의 경우 미 조회자의 경우는 확인 후 개별 안내 등

12 대학 지원, 발표 및 등록

- ◆ 지원, 발표 및 등록은 2014학년도와 동일하게 시행함
 -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의 등록에 있어, 미등록 충원기간을 수시모집은 6일, 정시모집은 9일 두어 미충원 인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함. 다만, 각 모집시기별 합격자 발표는 합격자 발표 마지막날 21시까지로 함

13 전형 일정

- ◆ 수시모집 원서접수 기간은 2014. 9. 6(토)~9. 18(목) 사이에 4일 이상 실시하며, 전형기간은 2014. 9. 6(토)~12. 4(목)사이에 대학이 자율적으로 진행함

※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의 원서접수 기간은 2014. 7. 1(화)~7. 11(금), 사이에 대학이 자율적으로 실시하고, 전형기간은 7.1(화)~12.4(목) 중에 대학이 자율적으로 진행하며, 재외 한국학교 및 해외 소재 고등학교 등의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7~8월 중 실시를 권장함

| 구 분 | 내 용 |
|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원서접수 | 수시 접수 : 2014.9.6(토)~9.18(목) 중 4일 이상 ※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: 2014.7.1(화)~7.11(금) |
| 전형기간 | 2014.9.6(토)~12.4(목)(90일) (다만,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은 7.1(화)~12.4(목) 사이 중 7~8월 전형시행 권장) |
| 합격자 발표 | 2014.12.6(토)까지 |
| 합격자 등록 | 2014.12.8(월)~10(수)(3일) |
| 수시 미등록 지원 합격 통보마감 | 2014.12.15(월)21:00시 까지 |
| 수시 미등록 지원 등록마감 | 2014.12.16(화)까지 |

- ◆ 정시모집의 원서접수는 2014. 12. 19(금) ~ 12. 24(수) 사이에 4일 이상 실시하며, 전형기간은 2015. 1. 2(금) ~ 1. 29(목)까지이며 모집 군별로 실시하며, 추가모집은 2015 2. 16(월) ~ 2. 23(월)까지 실시함

| 구 분 | 내 용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정시모집 원서접수 | 2014.12.19.(금)~12.24(수) 4일 이상 | |
| 정시 모집 전형 기간 | 가군 | 2015.1.2.(금)~1.11(일)(10일) |
| | 나군 | 2015.1.12.(월)~1.20(화)(9일) |
| | 다군 | 2015.1.21.(수)~1.29(목)(9일) |
| 정시모집 합격자 발표 | 2015.1.29(목)까지 | |
| 정시모집 합격자 등록 | 2015.1.30.(금)~2.3(화)(5일) | |
| 정시모집 미등록 지원 합격 통보마감 | 2015.2.11(수)21:00시 까지 | |
| 정시모집 미등록 지원 등록마감 | 2015.2.12(목)까지 | |
| 추가모집 원서접수 | 2015. 2. 16(월) ~ 2.23(월)(8일) | |
| 추가모집 전형일 | 2015. 2. 16(월) ~ 2.23(월)(8일) | |
| 추가모집 합격자 발표 | 2015. 2. 24(화) 21:00시 까지 | |
| 추가모집 등록 기간 | 2015. 2. 25(수) | |

- '15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'의 상세한 내용은 대교협
「KCUE 대입정보 홈페이지」(univ.kcue.or.kr)에 게재하여 제공
하며, 책자 배포 및 설명회 등을 통하여 홍보 안내할 예정이다.
- 한편, 교육부는 2017학년도 대입제도에 대해서는 10월에 확정
발표할 예정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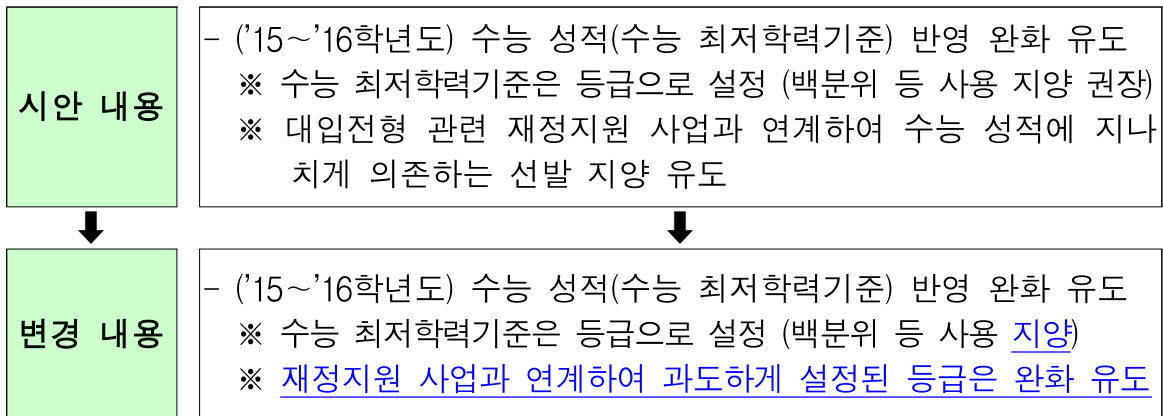
- ※ 붙임 1. '15·'16학년도 대입제도 중 시안 대비 주요 변경 사항
2. 시안에 대한 의견 수렴 경과 및 결과
 3. 시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
 4. 2015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
대입제도과 최윤정 사무관(☎02-2100-6367)과 대교협 구안규 팀장(☎
02-6919-383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수능 최저학력 기준

- 최저학력 기준은 기존대로 유지하자는 의견도 있으나, 간소화 및 학생 부담 완화를 위해 **완화 기조** 유지
- '15학년도에는 우선 **백분위** 사용은 자제하고 **등급만**을 사용하도록 하며, **과도하게** 설정된 등급을 **완화**하도록 유도



○ 전형 체계 : 특기자 전형, 입학사정관 전형 관련

[특기자 전형]

- 문제 제기가 있지만, 특기·소질(예체능, 어학, 수학, 과학, 발명, IT 등)에 의한 선발이라는 점, 그간 준비해 온 고1~2 학생의 신뢰보장 차원에서 모집단위별 특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**한해 제한적으로 운영**
- 다만, 재정지원과 연계하여 **모집규모 축소 유도**

[입학사정관 전형]

- 입학사정관 전형 명칭을 쓰지 않고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운영 되도록 하였으나, 현장은 전형 폐지로 인식하여 혼란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**명확한 표현 필요**
- 학생부 위주 전형유형을 “교과”, “종합”으로 구분 후 “학생부 종합” 전형에는 입학사정관 등 참여 명시

| | | | |
|-------|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시안 내용 | 구분 | 전형 유형 | 주요 전형 요소 |
| | 수시 | 학생부 위주* | ·학생부 교과, 비교과, 자기소개서, 추천서, 면접 등 |
| | | 논술 위주 | ·논술 등 |
| | | 실기 위주** | ·실기 등 (특기 등 증빙 자료 활용 가능) |
| | 정시 | 수능 위주 | ·수능 등 |
| | | 실기 위주 | ·실기 등 (특기 등 증빙 자료 활용 가능) |

* 입학사정관 등이 전형에 참여하여 학생부를 심층평가하는 경우 등을 포함
** 실기 위주 전형에는 '특기자 전형' 포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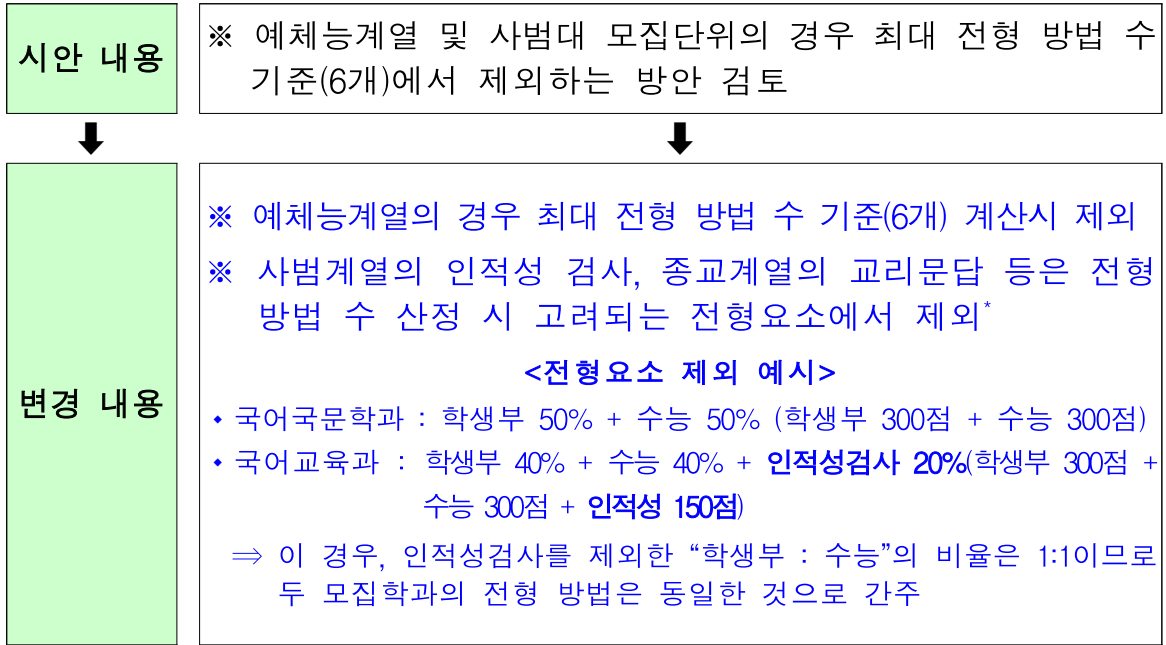
| | | | |
|-------|----|--------|---|
| 변경 내용 | 구분 | 전형 유형 | 주요 전형 요소 |
| | 수시 | 학생부 위주 | ·학생부 교과 : 교과 중심 ·학생부 종합 : 비교과, 교과, 면접 등 (자기소개서, 추천서 활용 가능) |
| | | 논술 위주 | ·논술 등 |
| | | 실기 위주 | ·실기 등 (특기 등 증빙 자료 활용 가능) |
| | 정시 | 수능 위주 | ·수능 등 |
| | | 실기 위주 | ·실기 등 (특기 등 증빙 자료 활용 가능) |

<참고 : 전형 설명>

- (학생부 위주) 학생부를 주된 전형요소로 반영하는 전형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
 - 교과 전형 : 학생부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전형으로, 모집 단위 특성에 맞도록 학생부 반영 권장
 - 종합 전형 : 입학사정관 등이 참여하여 학생부 비교과를 중심으로 교과, 자기소개서·추천서·면접 등을 통해 학생을 종합 평가하는 전형
- (특기자 전형) 실기 위주 전형에 포함하나, 모집단위별 특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하여 모집규모를 축소하도록 유도

○ 전형방법 수 기준

- 예체능·사범·종교계열의 특성을 고려하여, 최대 전형 방법 수 기준(4+2) 적용시 예외사항 적용
- 예체능계열은 전형 방법 수 기준(6개) 계산시 제외하고, 인적성 검사(사범계열)·교리문답 등(종교계열)은 전형방법 수 산정 시 고려되는 전형요소에서 제외



○ 모집요강 발표 시기 : 5월말 → 4월말

- 학생·학부모가 충분히 알고 대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모집요강 발표 시기를 5월말에서 4월말로 조정
- ※ 최종합격자 일괄발표시스템 구축과 연계하여 '17학년도에는 모집요강 발표 시기를 3월말로 당기는 방안 검토

-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더 이상 앞당기기 어렵다는 점 고려

| | | | | | |
|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시안 내용 | 구분 | 대입정책 (정 부) | 대입전형기본사항 (대교협) | 대입전형시행계획 (대 학) | 모집요강 (대 학) |
| | 발표 시기 | 중3, 11월말까지 (3년 3개월 전) | 고1, 8월말까지 (2년 6개월 전) | 고2, 4월말까지 (1년 10개월 전) | 고3, 5월말까지 (9개월 전) |
| ↓ | ↓ | | | | |
| 변경 내용 | 구분 | 대입정책 (정 부) | 대입전형기본사항 (대교협) | 대입전형시행계획 (대 학) | 모집요강 (대 학) |
| | 발표 시기 | 중3, 11월말까지 (3년 3개월 전) | 고1, 8월말까지 (2년 6개월 전) | 고2, 4월말까지 (1년 10개월 전) | 고3, 4월말까지 (10개월 전)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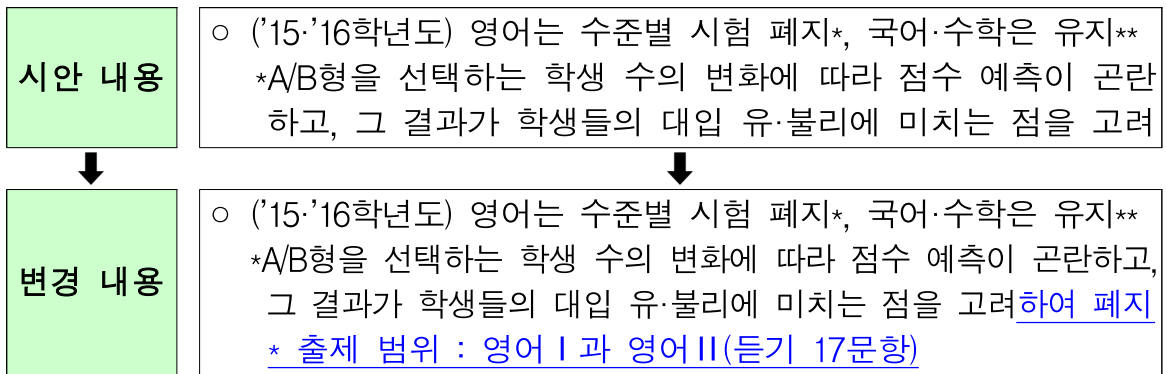
○ 지역인재선발 전형

- 관련 법안(김세연 의원 대표 발의 「지방대학육성법」 등)이 국회통과 이전이므로 시안대로 법률 제정 진행 상황에 맞추어 추진

- 따라서, 내년 4월말(모집요강 발표시기) 이전에 법안통과 시 대학별 “시행계획” 변경을 통해 반영토록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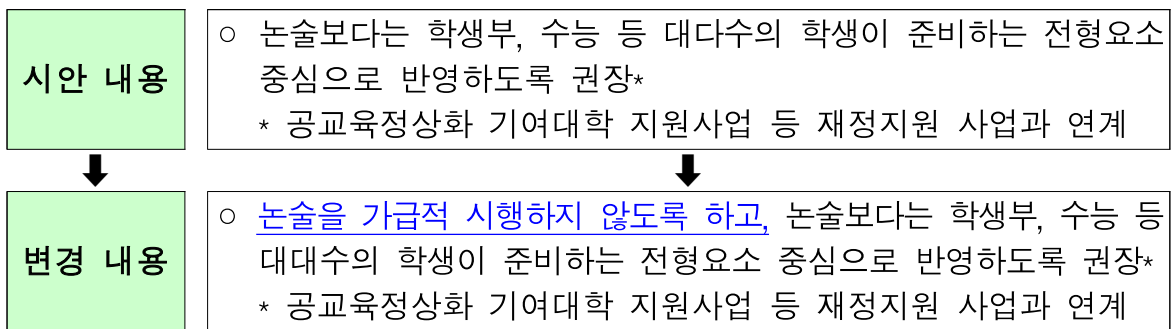
○ '15~'16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 출제범위

- 종전 A(영어, 영어 I)/B(영어II, 영어독해와 작문, 심화영어회화)형을 통합하므로 A형에서 영어 I, B형에서 영어II를 출제범위로 지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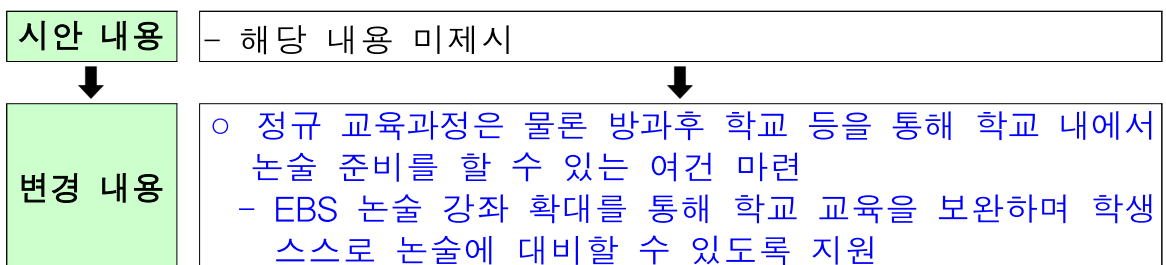


○ 논술 전형

- 시안과 같이 유지하되, 사교육비 부담 및 학교에서 준비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
-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논술고사를 가급적 시행하지 않도록 하고,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전환하도록 유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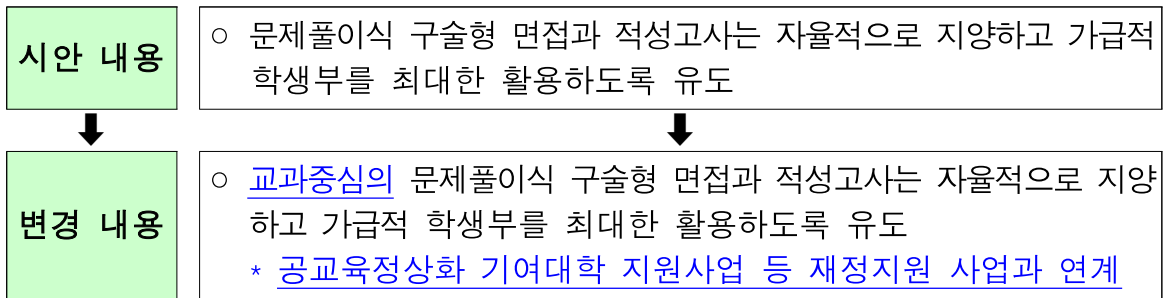


- 논술에 대해 대입 전형 관련 사항뿐 아니라, 학교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방안 포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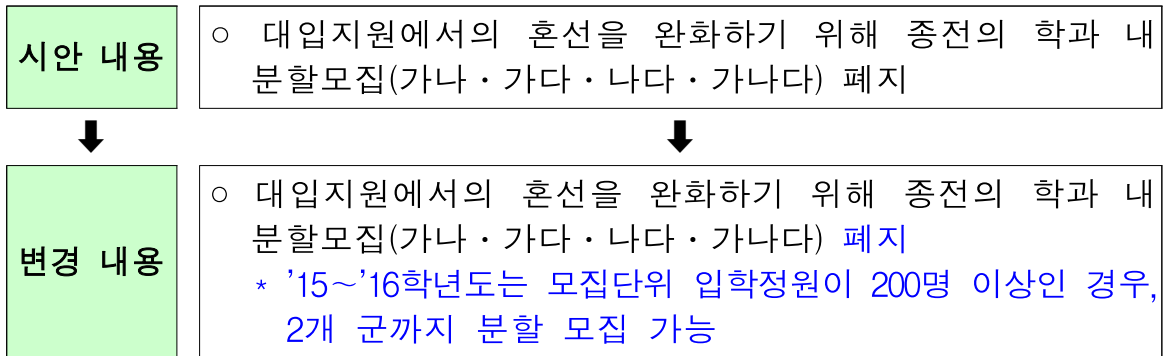
○ 적성고사 및 구술형 면접고사

- 적성고사를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, 단순 교과 지식을 측정하는 형태로 교육적 타당성이 부족하고, 별도의 준비 부담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시안 내용대로 “지양” 기조 유지
- 다만, 적성고사 등 시행을 지양하도록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유도할 것임을 명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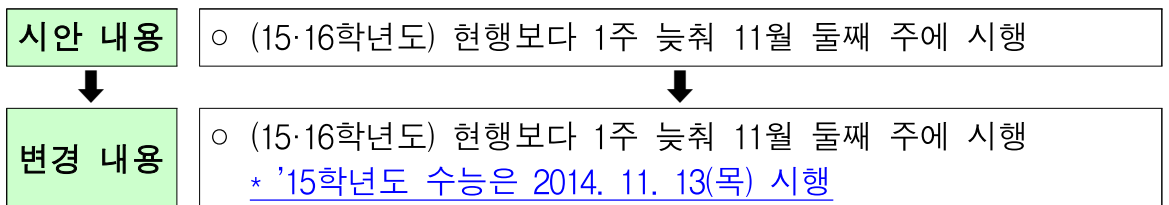
○ 정시 모집 학과내 분할모집

- 정시 모집단위 내 가·나·다군 분할 모집을 폐지할 경우, 모집인원이 많은 학부(계열)의 학생 모집 곤란 및 학생 선택권 제약 문제가 발생하므로 일부 개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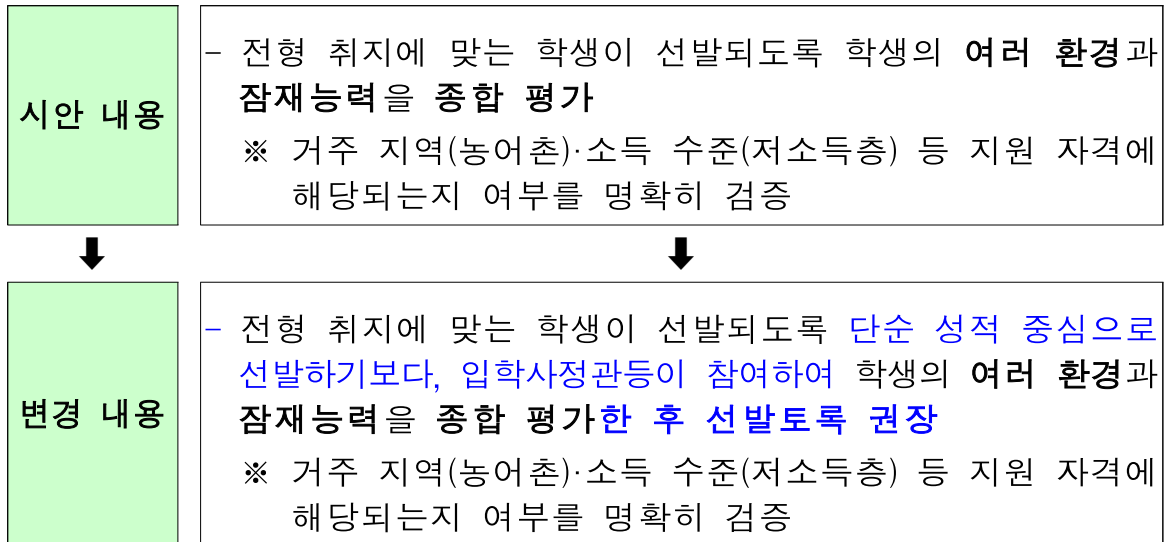
○ '15학년도 수능 시험일

- 현행보다 1주 늦춘 11월 둘째 주에 시행하며, 수능 시험 날짜 및 요일 명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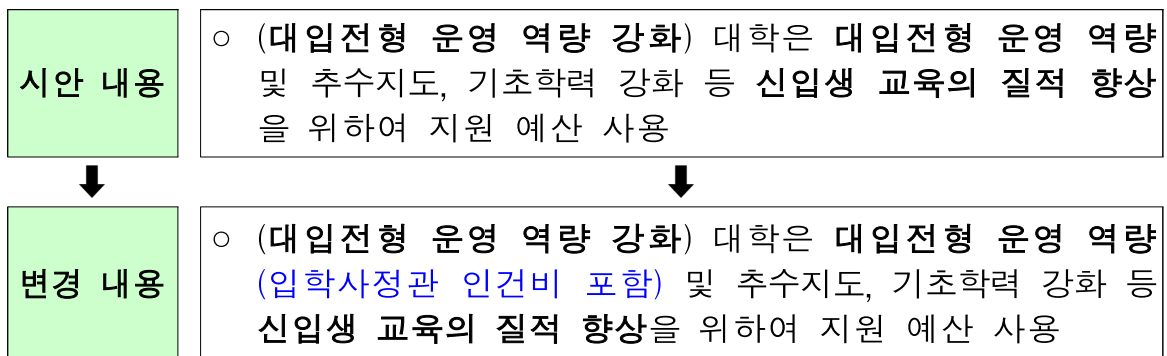
○ **고른기회 입학전형**

- 단순히 성적 중심으로 선발하기보다, 입학사정관 등이 참여하여 학생의 교육 여건·잠재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하도록 유도



○ **입학사정관 인건비**

- 재정지원 예산을 사정관 인건비로 쓸 수 있도록 명시



붙임2

설문조사 결과

<설문조사 개요>

- 조사대상 : 총 2,708명(교원 1,000명, 학부모 1,000명, 대학 관계자 708명)
- 조사기간 : '13. 9. 9. ~ 9. 11. (총 3일간) *학부모는 9.8부터 4일간 실시
- 조사방법 : 지정된 웹사이트 및 이메일을 통한 설문 조사

(N=1,000, 단위: %)

| 설문 내용 | | 찬성 | | | 반대 | | | 잘 모름 |
|--|--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-|------|
| | | ① 매우 찬성 | ② 대체로 찬성 | ①+② | ③ 대체로 반대 | ④ 매우 반대 | ③+④ | |
| 전반적인 평가 | 학부모 | 13.5 | 75.3 | 88.8 | 5.4 | 0.8 | 6.2 | 5.0 |
| | 고교교사 | 21.9 | 69.9 | 91.8 | 5.2 | 0.5 | 5.7 | 2.5 |
| | 대학관계자 | 5.2 | 62.4 | 67.6 | 20.2 | 6.9 | 27.1 | 5.2 |
| 표준화된 대입전형 체계 및 전형방법 제시 | 학부모 | 11.7 | 64.9 | 76.6 | 11.8 | 3.3 | 15.1 | 8.3 |
| | 고교교사 | 33.8 | 54.4 | 88.2 | 6.9 | 2.5 | 9.4 | 2.4 |
| | 대학관계자 | 15.4 | 52.3 | 67.7 | 18.8 | 11.7 | 30.5 | 1.8 |
| 사전 예고제 강화 | 학부모 | 25.5 | 61.3 | 86.8 | 6.5 | 1.3 | 7.8 | 5.4 |
| | 고교교사 | 54.2 | 42.8 | 97.0 | 0.9 | 1.0 | 1.9 | 1.1 |
| | 대학관계자 | 21.9 | 50.3 | 72.2 | 17.1 | 8.5 | 25.6 | 2.3 |
| 대학의 학교생활기록부 평가 내실화 | 학부모 | 18.1 | 60.2 | 78.3 | 14.5 | 2.7 | 17.2 | 4.5 |
| | 고교교사 | 37.0 | 47.8 | 84.8 | 9.9 | 3.4 | 13.3 | 1.9 |
| | 대학관계자 | 28.7 | 49.3 | 78.0 | 13.4 | 6.6 | 20.0 | 2.0 |
| 성취평가 결과의 대입 반영 유예 | 학부모 | 11.0 | 58.2 | 69.2 | 20.3 | 3.1 | 23.4 | 7.4 |
| | 고교교사 | 37.7 | 36.4 | 74.1 | 11.8 | 10.8 | 22.6 | 3.3 |
| | 대학관계자 | 34.6 | 35.7 | 70.3 | 13.8 | 12.7 | 26.5 | 3.1 |
|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선 (1) 영어 과목 A/B형 구분 폐지 방안 | 학부모 | 28.0 | 51.7 | 79.7 | 13.3 | 2.5 | 15.8 | 4.5 |
| | 고교교사 | 66.2 | 24.9 | 91.1 | 3.6 | 4.0 | 7.6 | 1.3 |
| | 대학관계자 | 66.5 | 24.6 | 91.1 | 4.1 | 3.1 | 7.2 | 1.7 |
|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선 (2) 국어 및 수학 과목 A/B형 구분 유지 방안 | 학부모 | 7.6 | 41.8 | 49.4 | 31.3 | 14.4 | 45.7 | 4.9 |
| | 고교교사 | 13.4 | 25.6 | 39.0 | 27.3 | 31.6 | 58.9 | 2.1 |
| | 대학관계자 | 10.5 | 24.9 | 35.4 | 30.6 | 31.4 | 62.0 | 2.7 |
| 대학수학능력시험 EBS 연계 비율 유지 | 학부모 | 29.5 | 55.8 | 85.3 | 10.0 | 1.5 | 11.5 | 3.2 |
| | 고교교사 | 25.3 | 49.6 | 74.9 | 13.2 | 11.1 | 24.3 | 0.8 |
| | 대학관계자 | 26.3 | 55.9 | 82.2 | 10.7 | 5.2 | 15.9 | 1.8 |
| 논술 감소 및 학생부와 수능을 활용한 선발 확대 (1) 학생부나 수능으로 논술 대체 유도 | 학부모 | 26.3 | 59.3 | 85.6 | 8.3 | 1.8 | 10.1 | 4.3 |
| | 고교교사 | 40.2 | 45.5 | 85.7 | 10.4 | 2.8 | 13.2 | 1.1 |
| | 대학관계자 | 36.9 | 38.6 | 75.5 | 13.0 | 10.2 | 23.2 | 1.4 |
| 논술 감소 및 학생부와 수능을 활용한 선발 확대 (2) 고교 교육과정 수준에서 출제 제한 | 고교교사 | 53.0 | 41.8 | 94.8 | 2.4 | 2.0 | 4.4 | 0.8 |
| | 대학관계자 | 43.1 | 44.2 | 87.3 | 6.4 | 4.1 | 10.5 | 2.3 |
| 문제풀이식 면접 및 적성검사 지양 방안 | 학부모 | 23.7 | 53.4 | 77.1 | 15.0 | 2.7 | 17.7 | 5.2 |
| | 고교교사 | 40.6 | 41.1 | 81.7 | 12.1 | 4.6 | 16.7 | 1.6 |
| | 대학관계자 | 33.5 | 33.1 | 66.6 | 14.3 | 16.5 | 30.8 | 2.7 |
| 수시모집 원서접수 1, 2회차 통합 | 고교교사 | 49.4 | 40.9 | 90.3 | 5.5 | 2.4 | 7.9 | 1.8 |
| | 대학관계자 | 48.4 | 36.6 | 85.0 | 7.6 | 5.4 | 13.0 | 2.0 |
| 정시 모집 시 학과 내 분할모집 폐지 | 고교교사 | 39.0 | 40.4 | 79.4 | 13.4 | 3.7 | 17.1 | 3.5 |
| | 대학관계자 | 26.1 | 30.1 | 56.2 | 20.1 | 19.6 | 39.7 | 4.1 |
| 공통원서 접수 시스템 구축 | 학부모 | 29.5 | 61.5 | 91.0 | 4.7 | 0.7 | 5.4 | 3.6 |
| | 고교교사 | 52.9 | 40.4 | 93.3 | 3.2 | 1.6 | 4.8 | 1.9 |
| | 대학관계자 | 28.2 | 35.3 | 63.5 | 14.3 | 19.4 | 33.7 | 2.8 |

□ 의견 수렴 경과

- 권역별 공청회 및 유관기관 간담회, 토론회, 온라인(페이스북), 설문조사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

<의견 수렴 경과>

- 공청회 : 서울(9.2)·대구(9.4)·광주(9.6)·창원(9.9)·청주(9.11)
- 간담회 : 대학입학관계자(경남권-8.28, 수도권-8.29, 경북권-9.4, 호남권-9.6, 충청·강원권-9.11), 학부모(9.4, 9.6, 9.9), 진학교사협의회 및 진로진학상담교사 협의회(8.30, 9.5), 입학사정관 협의회(9.9), 출입기자단(9.9)
- 토론회 : 박흥근의원실-사격세(8.28), 한국교총-좋은학교운동연합(9.12)
- 온라인 : 8.27(화) ‘대입간소화’ 페이스북 개통
- 설문조사 : 학부모·교원·대학관계자 등 2,708명(9.8.~11)

□ 의견 수렴 결과

- 설문조사 결과, 조사 대상 및 설문 문항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학부모·교원·대학관계자 모두 시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

< 시안에 대한 전반적 의견 > (단위: %, 세부 항목은 붙임 3참조)

| | 찬성 | | 합계 | 반대 | | 합계 | 잘 모름 |
|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|------|
| | 매우 찬성 | 대체로 찬성 | | 대체로 반대 | 매우 반대 | | |
| 학부모 | 13.5 | 75.3 | 88.8 | 5.4 | 0.8 | 6.2 | 5.0 |
| 고교교사 | 21.9 | 69.9 | 91.8 | 5.2 | 0.5 | 5.7 | 2.5 |
| 대학관계자 | 5.2 | 62.4 | 67.6 | 20.2 | 6.9 | 27.1 | 5.2 |

○ 공청회 등 의견수렴

- 수준별 수능 단계적 폐지, 우선선발 방식 폐지, 수시 1·2차 원서접수 기간 통합, 대입정보 제공 강화, 사전예고제 등은 큰 이견없이 시안에 찬성
-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, 시안 내용 일부 보완 내지는 개선 필요 등 의견 제시

< 2015학년도 대입전형 관련 내용 중 의견수렴 시 의견 제시 사항 >

| 항목 | 제기 의견 |
|----------------|--|
| 모집요강 발표시기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학생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, 시안(고3, 5월)보다 조기 발표 요구 • 대학의 입시·학사일정 등을 고려할 때 앞당기기 곤란하다는 의견 |
| 고른기회 입학전형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성적 중심의 선발이 아닌, 입학사정관 등이 참여하여 학생의 교육여건과 잠재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 선발 필요 |
| 입학사정관 전형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형 체계에서 기존 입학사정관 전형이 명시되지 않아 현장은 전형이 폐지된 것이라 인식하는 등 혼란 발생 • 입학사정관 인건비 예산 지원 필요 |
| 특기자 전형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인어학성적·외부 수상실적 등을 반영하여 준비 부담을 초래하는 어학·수학 특기자 전형 폐지 또는 개선 필요 • 이와 반대로, 다양한 능력 또는 꿈과 끼를 지닌 학생 선발 측면에서 현재 전형 형태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 |
| 논술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시안대로라면 논술이 강화될 우려가 있으며, 학교 내에서 논술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 방안 필요 |
| 적성 고사 및 구술형 면접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교육적 타당성이 부족하고, 별도 준비 부담을 초래하므로 즉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 • 그동안 준비해온 학생들의 혼란 방지를 위해 전형 유지 의견 |
| '15학년도 수능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정시 모집 비율 및 논술 비중이 강화되어 사교육비 증가 우려되므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는 곤란하나, 일부 대학이 백분위로 설정하여 발생하는 혼란을 해소하고, 지나치게 높은 기준은 완화 필요 • 수준별 수능을 영어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에는 동의하나, '15학년도 수능 영어 시험 범위 설정 필요 • 수능 일정을 우선 11월 2주로 연기하는 것에 동의하며, 시험 날짜 명시 요구 |
| 전형 방법수 제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예체능계·사범계·종교계 등은 특성상 다른 모집단위와 달리 추가 전형요소(인적성, 교리문답 등)가 필요하므로 예외 인정 |
| 정시 분할모집 제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오히려 학생들의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으며, 모집인원이 큰 모집단위는 분할 모집 불가피하다는 의견 |